

01 교회소식

풍성하고 탐스러운 은혜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예배 및 음성으로 듣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관련 소식.

02 생명의 말씀

양선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 선을 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양선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03 기획특집

하나님께서 주신 심고 거두는 법칙

주 안에서 심는 방법을 알아 제대로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심고 거두는 8가지 비결을 소개한다.

04 간증

“행복, 기쁨, 감사 넘치네~”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가 회복한 최백호 집사와 간증이 넘치는 태국 부사바 아누락와따나폰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13호 2015년 11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5 추수감사주일 지난 11월 15일 주일 대예배는 아름다운 단 장식과 한복으로 단장한 성가대의 찬양, 신동초 목사의 '열매'(요 15:4~5)라는 설교로 올 한해도 가난과 질병, 재앙을 걱정하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 수 있도록 축복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로 드렸다. 저녁예배는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요 6:53~55, 마 26:26~28)라는 설교 후 성찬식이 진행됐다. 본당을 비롯해 각 성전의 단 장식은 여선교회총연합회, 시실관리교, 차량교, 레위 및 만민봉사대의 섬김과 성도들의 찬조로 이루어졌으며, 총 315종의 과일, 곡식, 근채, 업체류로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책자를 아시나요?

전자책을 구입한 후 '듣기'를 터치하세요!

01 모바일 포털사이트에서 디지털교보문고, 리디북스, 예스24, 알라딘 중 하나를 검색,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그림은 디지털 교보문고로서, 회원 가입이 안 된 경우.

발간 전부터 화제를 모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00번째 저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발간 6주째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독자들은 “대작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 “위대한 선지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듯 심도 있게 담았다.”, “믿음을 키워줄 보너스 같은 책이다.” 등 책을 읽은 후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눈으로 읽지 않아도 되니 시각장애인은 물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느라 눈에 피로를 느끼는 직장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책을 손쉽게 읽을 수 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읽는 책 대신 듣는 책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으며, 등산, 운동 등 여가생활이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읽어주는 전자책으로 시간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읽어주는 전자책』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디지털교보문고, 리디북스, 예스24, 알라딘을 검색하여 읽고 싶은 도서를 전자책으로 구입한 뒤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그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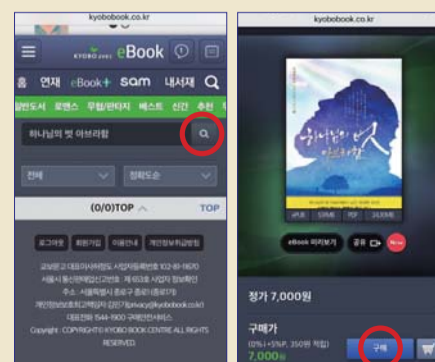
음성의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조절이 가능하며 시간 정지 설정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책은 종이책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 안에 다운로드 됨으로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 조현숙 권사는 “전자책에 읽어주는 기능으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책자를 들으니 눈이 피로가 없어서 참 좋아요. 책 읽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운전하면서도 듣고, 집안일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 자투리 시간 활용에도 너무 유익하고요. 당회장님의 다른 책들도 읽어주는 전자책으로 말씀 무장에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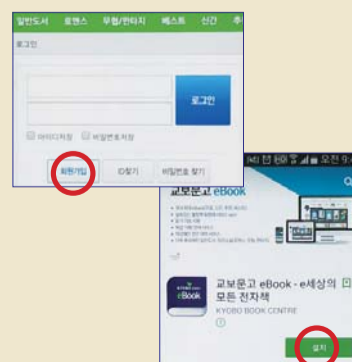
이 외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 설교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담은 『십자가의 도』를 비롯한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사랑은 율법의 완성』,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등 한국어 저서 50여 종을 전자책 '듣기' 기능을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한편, 문서선교를 통해 전 세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전자책(e-book)은 49개 언어 341종으로 발간되어 디지털교보문고를 비롯하여 아마존닷컴, iBookstore, 구글 플레이 북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02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검색하여 책자 표지가 나오면 아래 '구매'를 터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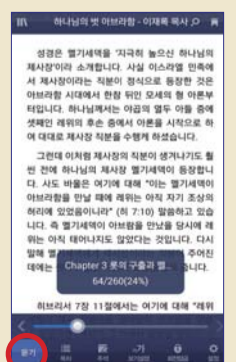
03 회원 가입을 하면 홈으로 돌아가 02 과정을 거쳐 결제합니다. 그 뒤 다운로드를 터치하여 해당 서점의 앱을 설치합니다.



04 eBook 서재에 놓인 구매한 책을 터치하면 다운로드 목록에 진열됩니다.



05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책자를 열어 '듣기'를 터치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양선의 열매

느끼지만, 늘 거짓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하지요. 이렇게 양심은 사람마다, 지역과 시대마다 서로 다르며 나름대로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성도들은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항상 동일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진리를 기준 삼아 행하려는 마음이 바로 양선입니다.

2. 선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양선(良善)’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으로서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곧 진리 안에서 선을 좇아 행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이 배어나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덕과 사랑을 베풀지요.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양선한 사람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만 간절하다고 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반드시 자기 마음에 이워야 하고 직접 행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양선을 행하였는지가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그냥 피해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지나쳐 버렸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할 순간에 행함을 내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며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준 뒤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떠났지요. 양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나 시간으로 손해를 본다 해도 차마 버리

고 갈 수 없었지요. 그냥 지나쳤다면 ‘다친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하며 마음에 두고두고 걸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선은 선을 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3. 예수님의 양선의 마음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흔히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와도 걸리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 할 정도로 조용하여 다투는 일도 없지요. 상대의 티나 허물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어 높임 받으려 하지도 않고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해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화초를 키울 때 상한 잎이나 가지가 매달려 있으면 깨끗하게 잘라내어 버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심지가 꺼져갈 때는 그 빛도 밝지 않고 그늘음이 심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예 불을 꺼 버립니다. 그러나 양선의 마음이 있으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마 단호하게 그 생명을 끊어버리지 못하므로 어찌하든 살 길을 열어 주고자 하지요.

여기서 ‘상한 갈대’란, 영적으로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란 ‘마음이 악으로 심하게 물들어서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행함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악을 발하며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 주셨지요.

양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악을 발하는 사람들을 품어 줍니다. 굳이 시비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꺾어 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대하여 그들을 녹이고 오히려 감동을 주지요.

물론 상대가 너무 악하여 내 편에서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내 편에서 ‘여기까지만 참자.’ 하며 한계를 두고 그 선을 넘으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자 애쓰는 것이 양선의 마음이지요. 어찌하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선을 좇아 행하는 양선이 다른 영적인 덕목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구제와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와 긍휼도 결국 선에 포함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양선’에서 더 부각되는 측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로 선을 좇아 행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긍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선의 마음이 양선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 충성을 해도 양선의 열매가 맺히면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에 온 집에 충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항목도 이렇게 적용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자를 실족시키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외면적으로도 선과 겸손이 풍겨 납니다. 주의 교양으로 범사에 존경받을 만하며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 등이 온전해지지요.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만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 양선의 열매가 마음에 온전히 맺히면 그리스도의 향이 발해지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선의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 진리를 기준 삼아 행하려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이것은 선하다.’ 혹은 ‘악하다.’ 분별하고 평가합니다.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나름대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지요. 하지만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란 ‘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떤 기를 받고 태어나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요.

선한 부모의 기를 받고 태어난 자녀는 비교적 본성이 선합니다.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선한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은 양심이 선하게 만들어지기 쉽지요. 반면, 악한 부모의 기를 받고 태어나 악한 것을 많이 접하면 본성과 양심이 악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을 중요하게 교육받은 아이는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에 가책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송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축복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8가지 비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심고 거두는 것이며, 심는다 해도 그 방법을 알아 제대로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8가지 비결을 소개한다.



1. 마음의 할례를 이뤄 기름진 마음밭을 준비한다

무엇을 심든지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심되 믿음이 클수록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이 성결된 만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다. 즉 마음에 할례하여 죄악을 벗어 버릴수록 믿음이 성장하여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의 축복은 물론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에 할례를 이루어야 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다.



2. 좋은 씨 곧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심는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행함이다. 십일조는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모든 육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함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실 수 있다. 이를 준행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3.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

탐심이 있으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귀가 솔깃해져 속기 쉽다. 따라서 탐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취하고 누리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한다(마 6:24).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하며, 목표를 정하여 하나님께 구하되 공의에 맞게 기도해서 성령의 주권을 받아야 한다. 자기 의욕이 앞서 무조건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의 음성을 막는 욕심이 될 수 있다(약 4:2~3).



4.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며 성실하게 일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도를 걷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골 3:23-24). 반면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다.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잠 6:1-5, 11:15, 22:26). 축복받기 위함은 물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5. 부지런히 많은 씨를 심어서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다.

넓은 땅을 가진 농부라 해도 심은 만큼만 거둘 수 있다. 영적으로도 부지런히 많이 심을 때라야 그 축복을 뚜렷하게 실감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이 심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큰 액수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심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닌 마음의 향이기 때문이다.



6. 끝까지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다

농부가 씨를 심고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땅을 갈아 엎어버린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허사일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심고 가꾸다가 원하는 대로 거두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거나, 아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기를 멈춰 버린다면 열매로 거둘 수 없다.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쌓아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기로 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드려야 한다(시 15:4; 전 5:4~6). 만일 작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이행하여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



7.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심는다

하나님 뜻 가운데 심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오히려 상대와 같이 연단을 받게 된다. 또한 사단의 역사로 분쟁과 불화가 있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예물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실 수 없다.

따라서 주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나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심으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마 10:40~42; 갈 6:6). 이처럼 그릇을 준비하면 심은 것마다 크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8. 영적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다

이는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영적으로 참된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면 몸으로 하는 봉사만이 아니라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충성을 그냥 받고만 계시지 않으며, 반드시 축복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다.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에 앞서 먼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한다. 헛된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GLOBAL CHRISTIAN NETWORK NOVEMBER 2015 GUIDANCE ON PROGRAM CHANGE & LIFE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11/22 ~ 11/28	이차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및 교육
	사랑장 16-20 요한일서 강해 1 창세기 강해 56-60 지옥 7-11 일곱교회 10-14 하나님의 선 요한계시록 강해 96 공부잘하는 비결 6-10 위로부터 난 지혜 7-9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사랑의 힘으로 (이수진 목사) 생명과 평안 2 (이미경 목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희선 목사) 열매 (신동초 목사) 열재앙 19 (정구영 목사) 위로부터 난 지혜 2 (김수정 목사) 깊은 데로 가서 그들을 내리라 (이재정 전도사)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6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3 창조와 과학 18 English 9 내 마음의 찬양 22 옛날 옛적에 13 모두 드려요 37 즐거운 요리 3	러시아 연합대성회 2 믿음으로 걸은 길 17 회상 [시즌2] 6 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	

“뇌경색으로 반신불수였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2015년 2월 11일, 낮부터 팔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점심식사를 하려는데 수저가 손으로 안 쥐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접수를 하는 동안에는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여 휠체어를 탄 채로 진료실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뇌경색이라며 바로 저를 중환자실로 보냈습니다. 마비는 점점 심각해져 3일 만에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혼자 힘으로는 앉고 설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33년 간 한국통신에 근무하였기에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통신이나 방송에 관련된 자격증을 일곱 개 취득하였습니다. 2년 전부터는 업계에서 최고의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궁구해 보니 이 분야에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어느 틈엔가 교만해진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내 자랑과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기도를 쉬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제 모습을 발견하니 통탄의 눈물이 흘렀지요. 저는 당회장 이재록



최백호 집사와 아내 박혜경 권사 (61세, 2대대 14교구)

목사님의 설교 중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을 비춰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한 일들을 회개하며 설교 후에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비 증세는 급속도로 호전되어 한 달 후부터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반 만에 스스로 걸어서 퇴원하였습니다. 회복이 너무 빨라 담당 의사가 학회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할 정도였지요. 다만 완전히 마비되었다가 돌아온 몸이라

걸을 때 절뚝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치료받고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2015 만민 하계수련회’를 한 달 앞두고 십자가의 도,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함께 통회자복이 나왔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서인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제 방식대로 고집하며 뜻대로 안 되면 혈기를 내는 등 잘못된

일들이 많았지요. 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8월 3일,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이어진 은사 집회 시 당회장님께서 전체를 위해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였습니다. 마치 아기가 자고 일어나 쪽 가지개를 켜는 것 같이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쭉 주어졌고 몸이 떨릴 정도로 위로부터 힘이 왔습니다. 감격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 벌떡 일어나 간증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전혀 절지 않고 정상인처럼 씩씩하게 말이지요.

그 다음 날에는 저 혼자서 계단도 성큼성큼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가지개를 켜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 차례 느끼게 해 주시며 저를 더욱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뒤 저의 신앙은 새롭게 회복되었으며, 하루 하루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죽음 앞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저도 제2의 인생을 선물받은 것이지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본의 소리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참 평안과 행복을 얻었어요”



어머니, 아들과 함께하는 부사바 아누락와따나꾼 성도 (34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2014년 10월, 저는 치앙라이만민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GCN(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는데,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십세명 등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아가고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니 신앙생활이 행복하였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에는 주일예배 시 화상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10년 된 고질적인 두통과 14년 된 허리통증을 치료받았지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 말수가 없고 혼자 있기 좋아하며 생각이 많아 사람에게 상처도 잘 받던 제가 변화되어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 이웃과 친지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들과 친정어머니가 전도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들은 저를 닮아 말이 없고 내성

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 교회 주변 마을을 다니며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 참석은 물론, 예배 전 자리 정리를 하는 등 봉사를 즐겨하는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을 모시고 손수건 집회가 열렸는데, 감사님이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저에게 기도해 주신 뒤 13년 전부터 있던 자궁냉증, 냉대하를 치료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고자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하여 더욱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졌으며, 당회장님과의 악수를 통해 약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간절함과 변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요. 이 외에도 잠자리, 무지개, 천상의 바람 등 각종 기사와 표적,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537,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잔방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8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